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81
----------	------

발의연월일 : 2024. 12. 30.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박수현  
이수진 · 허성무 · 윤종오  
한창민 · 이용우 · 이재강  
서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법률 제 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을 “최저임금액”으로, “2분의 1 이내의”를 “2분의 1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최저임금액으로”를 “최저임금액의 2배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u>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u>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u>2분의 1</u>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u>최저임금액으로</u> 한다.	③ ----- ----- ----- ----- ----- <u>최저임금액</u> ----- <u>액</u> ----- ----- ----- ----- <u>2</u> ----- <u>분의 1</u> 이상의----- ----- ----- ----- ----- ----- <u>최저임금액의 2배로</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	----------------